부산불교 모여 '佛都 부산' 환히 밝히다

부산연등회봉행위 · 삼광사
구별 연합회 각지 점등식
봉축행사 원만회향 기원해
부산연등회 SNS 공모전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도 부산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밝은 빛을 밝히는 점등식이 잇달아 봉행됐다.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위원장 정오 스님)는 4월 26일 송상현광장에서 '2568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법석을 증명하는 혜총 대종사,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현강 정사, 마나 스님 등 부산 구·군 불교연합회장 및 회원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준승 부산시행정부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헌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아울러 김수현 부산불교여성개발원장,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회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등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신행단체장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부산연등회 점등식은 전통놀이인 호기놀이를 재현하고 등을 매단 장대 '등간(燈竿)'을 선보여 연등회의 전통문화 가치를 알린 점이 눈에 띄었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천진불들은 노래와 춤을 무대에서 선보인 후 호기놀이가 적힌 깃발을 앞세우고 행사장을 행렬했다. 내빈들은 마련된 봉투를 희사하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의 발전과 전통문화 발전을 기원했다.

송상현광장에는 범어사 7층석탑등과 대형장엄등이 일제히 화려하게 불을 밝혔다. 신나는 풍물패가 행렬 선두에서 봉축의 기쁨을 더했고, 지난해 연등제등행렬 우승팀인 여래선원이 간이 연등행렬을 선보여 봉축분위기를 한껏 북돋았다.

회장 정오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부산연등회는 부산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봉축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사"라며 "오늘 우리가 밝힌 등이 부처님 가르침처럼 두루 세상을 포용하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2568부산연등회는 5월 12일까지 17일간 이어진다. 봉축연합대법회와 연등행렬은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봉행된다. 특히 관람객 SNS 공모전도 진행한다. 행사기간 부산연등회 관람 후 관련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고 해당 링크를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010-5920-0501)로 전송하면 응모된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는 4월 27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대법회'를 봉행하고 점등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가 송상현광장에서 범어사7층석탑등에 불을 밝히고 있다.


천태종 삼광사 경내에서 봉행된 점등대법회. 내빈들이 연등을 밝히고 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점등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유와 평등, 평화 그리고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겨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점등사에서 "자신 안에 있는 미혹의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과 상생의 불빛으로 회향되기를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법회 후 내빈들은 지관전 입구에 마련된 점등대로 자리를 옮겼다. 경내 마당에는 신도를 비롯한 부산시민, 외국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점등하자 삼광사 경내와 일대에 설치된 10만등과 대형등이 불을 밝혔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는 4월 30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연합회장 지원 스님, 부회장 능후 스님, 감사 대각 스님, 사무총장 호명 스님과 김정규 남부경찰서장, 박화자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남부경찰서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남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봉축을 맞아 부처님 가피로 남구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기도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정규 남부경찰서장은 "항상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스님들 덕분에 남구가 한층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가는 것 같다. 스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영제 스님)는 4월 28일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혜총 대종사, 회장 영제 스님, 가야사 회주 정현 스님, 정목 정사(정정심인당) 등 회원스님들과 이헌승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김영욱 부산진구구청장,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다.

혜총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평화를 위해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물질, 좋은 몸을 사용하고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닦으라고 당부하셨다"며 "오늘 밝힌 등은 행복을 의미하고, 이 행복이 부산진구 주민과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불교연합회는 불교발전과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윤환 영광도서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기장군사암연합회(회장 도림 스님)는 4월 28일 장안사 경내에서 봉축점등식 및 제13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장안사 주지 도림 스님,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기장군사암연합회는 10~12대 회장 역임한 정오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장안사 주지 도림 스님을 신임회장으로, 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을 부회장,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을 총무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도림 스님은 기장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림 스님은 "기장군과 기장불교발전을 위해 지난 13년간 애써주신 정오 스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다"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항상 소통하며 불교홍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반려견과 함께 홍법사로 놀러오세요"

5월 10일, 반려견 템플스테이
당일형 · 숙박형으로 나눠 진행

조계종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반려견과 반려인을 템플스테이로 초대한다.

반려견 동반 템플스테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반려인에게 힐링과 쉼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심산 스님은 "현대 많은 이들이 반려견과 생활을 하고 가족처럼 정서를 나누지만 정작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지금 1000만 인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홍법사에서 마련한 반려견 동반 템플스테이는 현대 시대와 요구에 발맞춘 현대적 포교방법이며 수용해서 함께 하고자 고심해 마련한 기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이 생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아름다운 환경을 공유하는 자세도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홍법사가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로 개최한다. AI 이미지 제작 사진(비바인사이트).

홍법사는 이번 반려견 템플스테이를 위해 비바인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펫 브랜드 '멍콕'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최초의' 반려동물 동반 템플스테이로 오는 5월 10일 서포터즈 활동으로 시작을 알린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사찰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마음껏 냄새를 맡고 자연을 즐기는 반려견 친화적 활동으로 사찰에서 숙박 및 식사, 체험 모두를 누릴 수 있다. 부산 홍법사는 아미타 기도도량으로 넓은 잔디 마당이 있어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반려인이 머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진 곳이다.

'멍콕 템플스테이'는 당일형과 숙박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인 1견을 기본으로 하며 당일형은 현장에서 반려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숙박은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서포터즈 활동이 끝나는 5월 중순부터 사이트 멍콕 (www.mungkok.com)에서 예약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일형은 토요일, 숙박형은 화, 목, 금, 일요일 주 4일간 예약가능하다.

한승민 비바인사이트 대표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지난해 4조원 가량으로 성장했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다양한 반려동물 콘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체험을 원하는 반려인구의 니즈를 충족하고 특화콘텐츠로 자리잡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도구불교연합회 봉축맞이 자비나눔

이웃돕기 성금 · 장학금 지원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 스님)가 봉축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4월 28일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과 장학기금 300만원을 영도구청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연합회장 호법 스님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영선사 정오 스님, 김희윤 영도구불교신도연합회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회장 호법 스님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영도구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한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도구 전체가 부처님의 가피로 가득하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요즘 사찰도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정성스럽게 나눔을 해주시니 감사하다. 소외되는 곳 없이 잘 전달해 스님들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기금은 동삼사회복지관에 100만원, 영도구노인복지관에 100만원, 행복연구장학회에 300만원이 전달되며, 이웃돕기로 1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어버이날, 어르신 행복 기원"

부산정각원, 어르신 한마당 잔치

나눔실천도량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 산하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하 부산정각원)이 5월 1일 사상구 고동바위 공원에서 '어르신 초청 주민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부산정각원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효를 실천하는 자리로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부산정각원 봉사자와 9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어울림마당은 나눔봉사단 실버레크리에이션이 진행하는 무대로 흥겨움을 더했다. 특히 부산정각원 봉사자들은 '자비와 광명'이라는 문구를 카네이션에 적어 어르신에게 선물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아울러 국수 900인분을 마련해 공양 올리고 양말도 전달했다.


지역어르신들을 초청해 효잔치를 열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부산정각원 스님과 봉사자들.

향공 스님은 "그동안 저희 견강암 부산정각원 불자들은 어르신 덕분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고 공덕을 쌓을 수 있었다"며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다가올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고 효를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소소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함박웃음을 짓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나눔실천자비도량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다. 주지 향공 스님의 나눔 원력으로 발족했으며 부산 국제시장 난민촌의 소외 이웃을 위한 국수만발공양으로 시작했다. 봉사를 이어온 향공 스님과 신도들이 발심해 지난 2022년 11월 1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매월 2·4째 주 무료급식과 효나눔잔치, 도시락 배달, 소외이웃 물품전달, 장학금 지원, 동지팥죽 나눔 등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시민 위한 무료 힐링강좌 개설

부산불교교육대학 8월까지 진행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이 부산시민을 위한 힐링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도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며 부산시민의 정신 안정을 위한 무료강좌다.

힐링강좌는 5월부터 8월까지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도일 스님(전 송광사 율원장)과 하림 스님(미타선원 선원장), 행복선명상센터 관계자 등이다.

도일 스님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30일과 7월 25일, 8월 29일 총 4번에 걸쳐 시민을 위한 불교와 붓다의 가르침을 주제로 강의한다. 행복선명상 프로그램은 5월 9일, 16일, 23일과 6월 13일, 20일, 27일 그리고 7월 4일, 11일, 18일이며 마지막으로 8월 22일 등 총 10회 동안 진행된다. 하림 스님은 현재 미타선원에서 행복선명상센터를 운영하며 부처님의 사성제와 대념처경을 근간으로 진행하는 명상을 안내하고 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서면에 위치한 부산을 대표하는 불교대학이며 역사 깊은 교육도량"이라며 "이번 강좌는 마음에 고통이 있는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힐링강좌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살기좋은 부산만들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051-711-07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